

■ 미국과 비교한 저임금근로자 비중 (정성미 연구원)

- 우리나라의 저임금근로자(중위임금의 2/3 이하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2005년 현재 시간당 4,222원 이하의 임금을 받으며, 전체 임금근로자의 26.8%를 차지하고 있음.
-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조사와 유사한 미국의 상시인구조사(Current Population Survey, 이하 CPS)자료를 이용하여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을 살펴보면 2005년 현재 시간당 9.6달러 이하의 임금을 받으며 전체 근로자의 25.7%를 차지함.
- 미국과 한국의 임금근로자 비중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미국은 매년 일정한 비중을 보이는 반면 한국은 200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우리나라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은 30대에서 낮게 나타나고 중장년층에서 높게 나타나는 반면, 미국은 40대 이후 중장년층에서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낮으며, 성별로 보면 미국에 비해 우리나라 여성의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훨씬 높게 나타남.

문의처 : 한국노동연구원 정성미 연구원

Tel : 783-7155 E-mail : smjung@kli.re.kr

* 한국노동연구원 보도자료 및 원문은 인터넷(<http://www.kli.re.kr>)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미국과 비교한 저임금근로자 비중

담당자	정성미 연구원
전화	02)783-7155

- 우리나라의 저임금근로자(중위임금의 2/3 이하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2005년 8월을 기준으로 시간당 4,222원 이하의 임금을 받으며, 전체 임금근로자의 26.8%를 차지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인구조사와 유사한 미국의 상시인구조사(Current Population Survey, 이하 CPS)자료를 이용하여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을 살펴보면 2005년 현재 시간당 \$9.6 이하의 임금을 받으며 전체근로자의 25.7%를 차지함.
 - 미국과 한국의 임금근로자 비중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미국은 매년 일정한 비중을 보이고 한국은 2000년 이후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 성별로 보면 2005년 기준으로 한국은 남성의 15.8%, 여성의 42.0%가 저임금근로자로 있는 반면, 미국은 남성의 21.4%, 여성의 30.5%가 저임금근로자임.

[표 1] 한국과 미국의 성별 저임금근로자 비중 추이

(단위 : %)

	한국(경제활동인구조사)			미국(CPS)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2000	24.7	14.4	40.1	25.7	20.9	31.0
2001	22.6	12.8	37.0	24.8	20.1	30.0
2002	23.2	12.9	38.1	24.8	20.3	29.7
2003	27.5	15.4	44.6	25.3	21.0	30.0
2004	26.3	15.4	41.5	25.4	21.0	30.2
2005	26.8	15.8	42.0	25.7	21.4	30.5

주 : 1) 저임금근로자 = 중위임금(시간당 임금)의 2/3 이하 근로자

2) CPS의 2005년 자료는 7월까지 평균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각년도

BLS, 『Current Population Survey』, 각 년도, <http://www.bls.census.gov/cps/>

- 양국 모두 여성의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크게 나타났으나 특히 우리나라의

여성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남성의 약 2.8배에 달하여 남녀 비중차이가 미국에 비해 훨씬 크게 나타남.

- 우리나라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은 30대에서 낮게 나타나고 중장년층에서 높게 나타나는 반면, 미국은 40대 이후 중장년층의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낮음.
- 한편 10대의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은 양국 모두 높아 2005년 기준으로 미국이 80.0%, 우리나라가 74.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중이 2003년부터 70% 수준을 상회함.

[표 2] 한국과 미국의 연령별 저임금근로자 비중 추이

(단위 : %)

	한국(경제활동인구조사)						미국(CPS)					
	15~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15~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2000	66.0	23.4	17.0	21.2	32.0	60.0	75.6	33.6	18.7	16.8	17.5	33.2
2001	58.1	20.3	14.3	21.1	31.2	60.0	75.8	32.8	18.3	16.5	16.6	30.5
2002	69.1	21.8	14.1	21.5	30.3	61.1	75.8	34.0	18.3	16.7	16.2	29.1
2003	77.1	27.5	16.2	25.7	36.2	67.7	77.8	36.6	18.8	16.7	16.6	27.9
2004	73.8	25.9	16.5	24.1	33.2	66.4	78.9	37.0	19.0	16.5	16.3	27.9
2005	74.1	26.0	16.8	24.5	34.6	65.8	80.0	37.2	19.2	17.2	16.4	28.1

주 : 1) 저임금근로자=중위임금(시간당 임금)의 2/3 이하 근로자

2) CPS의 2005년 자료는 7월까지 평균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각년도

BLS, 『Current Population Survey』, 각 년도, <http://www.bls.census.gov/cps/>

- 한국은 30대에서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이 가장 낮게 나타나 2005년 기준으로 16.8%를 차지하고 있으나, 미국은 30~50대에서 약 16~19%의 낮은 저임금근로자 비중을 보임.
- 또한 한국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커지고 있는데 2005년 기준으로 50대에서 34.6%, 60대에서 65.8%의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매년 증가하나 미국의 경우 60대 이상의 연령에서 약 28%의 비중을 보이고, 그 비중 또한 줄어드는 추세를 보여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저임금근로자가 장년층과 고령자에 더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줌.

- 2000년 이후 임금근로자는 약 153만명(연평균 3.3%)이 증가하여 고용의 양은 늘어났으나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매년 늘고 있어 고용의 질이 향상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이고, 특히 여성과 중장년층에서의 높은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취약계층의 구직자가 저임금일자리와 근로빈곤층으로 집중되고 있음을 시사함.